



* 하나님을 기쁘시게

* 이웃을 행복하게

* 세상을 아름답게

C O N T E N T S

- 02 Focus **희망으로 가는길**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
- 07 **캄보디아다일공동체** 희망의 길 만들기 프로젝트
- 08 Review **캄보디아 비전트립**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 10 **다일의 현장** 밥퍼나눔운동본부
- 12 **다일의 현장** 설곡산다일공동체
- 14 **다일의 현장** 네팔다일공동체
- 16 **다일의 현장** 베트남다일공동체
- 18 포토에세이
- 19 **다일 뉴스**
- 23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cover story

세 배우와 시인목사 북극곰이 함께하는 주말나눔콘서트를 통해 제3세계의 이웃들을 향한 참사랑의 나눔을 실천합니다.

후원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



다일공동체는 한 영혼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나누고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시작한 일이 이제는 사람을 키우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을 살리는 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일공동체는 입을 모아 이야기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혼자 힘의 아닌 함께 했기 때문임요. 다일공동체는 오늘도 국내, 외 소외된 이웃들에게 혼자가 아닌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말입니다. 후원회원님들께서도 함께 만들어 가 보실래요?

+ 중국다일공동체-멘토링사업 : 사람을 키우는 일

why 왜 필요한가요?

중국다일공동체는 부모가 안계시거나, 부모 중 한쪽이 실종 혹은 살아계시더라도 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지 못하고 꿈조차 꿀 수 없었습니다.

----- 꿈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이의 이야기
어머니는 미혼모이며, 수감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남은 아이는 7살, 그때부터 중국다일공동체와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입소 당시 인상 깊은 것은 불안한 눈빛과 잦은 소변실수였습니다.

중국다일공동체에서 사랑의 돌봄으로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었고, 학업능력은 높지 않지만 놀라운 집중력과 다양한 재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고 학업능력 또한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삼성꿈장학재단과 멘토링사업을 하게 되었고, 아이에게는 다양한 교육과 정서지원서비스가 이루어 졌습니다.

멘토링 이후 아이는 훈춘시 중학교 시험에서 전교 상위권, 더 놀라운 변화는 성적이 오르자 자신감

이 생기고 생활도 활기 차지고 동생들에게도 따뜻한 말투로 이야기 합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하게도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냥 대강 하자.” “중간이면 됐지, 내가 잘해서 뭘 하겠어.” 했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훈춘시의 교육환경은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등록금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만 학비를 제외한 학업보조비의 부담이 큼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일어린이집에 입소된 아동의 학급 선생님께서로부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특별활동 권유를 받아도 재정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삼성꿈장학재단을 통해 중국다일공동체 아이들 중 학령기 학생들이 글로벌꿈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what 멘토링은?

첫째, 체계적, 조직적, 멘토링 시스템 도입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육성하도록 내부적 역량강화
 둘째, 1:1상담과 정기적인 멘토 회의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기록 및 재능지원으로 인재양성
 셋째, 멘토를 통한동기를 지원하기위해 1차년도 14명의 아동이 참여하였고 2차년도 17명이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중국다일공동체가 설립된 지 십년 세월이 훨씬 지난 현재는 이곳을 졸업한 아동 12명과 입소중인 아동이 21명이며, 이 중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명과 한국유학 중인 학생 1명, 대학을 졸업한 학생 1명, 자신의 전공을 살려 해외에서 봉사하고 있는 아이가 1명, 이외 자신의 특기를 살려 취업한 아동이 다수입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꿈을 찾고 성장해가는 것은 훈춘시도 다일공동체에게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서로 다른 외모와 언어지만 한 지붕, 한 가족인 중국다일공동체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아이들의 재능을 더욱 개발하고 각자의 꿈을 찾으며 성장하도록 도우며, 중국과 세계 곳곳에 꼭 필요한 인재와 리더로 성장하여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을 꿈꿉니다.



+ 캄보디아다일공동체-땀과: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일

why 왜 필요한가요?

첫째, 원거리 지역 결식아동들에게도 영양공급



무료급식이 절박한 아동들 중 근거리 아동들은 캄보디아다일공동체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을 이용할 수 있으나, 원거리의 아동들은 결식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수상마을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아동들은 우기와 건기에 따라 수상가옥의 위치가 이동하기 때문에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모자가정, 청년층의 역량강화 및 구직 활동의 지원

해당 지역의 낮은 교육수준과 교육 이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업 교육의 기회가 아주 없어, 구직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10대 후반-30대 초반)의 주요 구직활동은 가정도우미, 식당일 등에 국한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난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못할 경우 결혼을 일찍 하거나 혼외임신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결혼이 가정의 안정적인 경제력을 보장하거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을 통한 한 부모 가정으로 남게 되거나, 미혼모로 살아가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낮은 교육수준과 가난의 문제는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what 빵퍼 사업은?

캄보디아 씨엠립 톤레삽 수상 빈민촌 지역(쭉크니어마을, 스투크억마을, 프놈펜안동마을)과 지역사회기관(프놈크롬초등학교, 쭉크니어초등학교, 쭉크니어병설유치원)등 최대빈민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1차적인 영양과 보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 6회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가능한 대상자들에게 구직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캄보디아다일공동체는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넘어 제빵교육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빵퍼 수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금은 지역개발 교육 사업에 재투자하여, 개인의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 그로 인해 더 많은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배움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나아갑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제빵왕 김탁구보다 더 멋진 제빵왕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꿈에 동참해 보세요!

* 빵퍼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 캄보디아다일공동체-조선소사업: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

why 왜 필요한가요?

수상 빈민촌은 집을 지을 땅과 농사 지을 땅이 없어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들에게 부족하거나 낙후된 배는 평균 5-6명의 가족의 생계와 밀접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옵니다. 또한 배 부족은 지역사회의 노동인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빈곤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스쿨보트로 이용되는 배의 부족으로 교육의 기회조차 없고, 빈곤의 되물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what 조선소 사업은?

캄보디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일조선소사업은 주민역량 강화와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배를 임대하여 줌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매년 임대료 중 일부로 배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사회간접자본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건기와 우기에 상관없이 지원된 배를 이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추진 과정

욕구조사->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지역개발회의->배 공급 계약->수혜자 조사자 선발 및 교육->수혜자조사->배 지원사업 수혜자 신청접수->수혜자 배 지원(임대)계약 및 교육->배 제작->모니터링->지역개발회의

1차년도 추진 결과

배 제공		지역사회개발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차년도 150척 배 제공	1차년도 151척 배 제공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개발위원회 및 조합원결성 1차년도 총 4회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2.15.-2011.12.31. 배 제작 및 전달 - 2011.2.15.-2012.2.14. 모니터링 - 배 1척당 1년 임대료 \$30 납입 - 배 수령자 151명 평균 81% 소득증가 및 38명 아동 취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2.15.-2012.2.27.까지 총 4회 회의실시 - 회의를 통해 수해 이재민 대책 논의 및 임대료 활용방안 논의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주민들이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기를 꿈꿉니다. 이미 지역 내에 무료급식소인 밥퍼, 빵퍼, 클리닉,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교실 운영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올해 2월에 첫 삼을 뜨고 기공식을 한 아시아 다일비전센터를 통해서 그 꿈들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 조선소 사업은 코이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 더 나은 내일 만들기 위한 아시아 다일비전센터 세우기에 함께하기

아시아 다일비전센터에서는?

2012년 2월, 더 이상 빈곤의 되물림이 되지 않도록 아시아 다일비전센터 세우기에 첫 삼을 떴습니다. 아시아 다일비전센터는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다일영성수련을 경험하고 나눔과 섬김의 현장체험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을 배우는 곳이며, 현지의 청년들에게는 다일영성수련과 직업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와 더불어 도움을 받는 자에서 도움을 주는 자로서 진정한 서번트 리더십을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문의 다일복지재단 02 2212 8004 / www.dail.org





캄보디아다일공동체

THE WAY

희망의 길 만들기 프로젝트

지뢰 피해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 Pourk

다리를 잃고 팔을 잃었던 그들 인생의 아픔처럼
뿌억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험하기만 합니다.

움푹움푹 패인 웅덩이 때문에 비가 오면 차가 꼼짝도 못하는 길,
매 주일마다 온 마을의 아이들이 그 길을 맨발로 달려 예배당에 옵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는 뿌억마을 주민들과 함께
평평하고 안전한 마을길을 만들기 위해 공사를 시작합니다.

\$1에서 \$100까지 뿌억 마을의 주민들도 손을 모으고,
삼과 깻이를 들고 나와 공사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패인 웅덩이가 메워지고 굴곡 있던 길이 평탄해 지듯이
뿌억 주민들의 삶도 주안에서 사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길 위에서 당신과 함께 뿌억마을의 희망을 만나길 바라며,
\$100의 후원자 100명을 기다립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 후원 (국민) 467701-01-152018 사회복지법인다일복지재단

| 문의 02.2212.8004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만남은 나눔으로 이어졌고, 더 이상 그들은 남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보았고, 그들의 삶에서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려 합니다.

만남

아시아 다일비전센터가 세워지기를 꿈꾸며 올해들어 세 번째로 최일도 목사님과 각양 각처에서 모인 캄보디아 다일비전트립팀이 함께 떠납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캄보디아행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나눔

“사랑이 나눌수록 커지는 것처럼 신기하게도 밥퍼의 밥도 나눌수록 많아지더라고요.” 밥을 준비하고 나누며 우리도 모르게 사랑 한 숟가락, 관심 한 숟가락씩 들어가서 보통 밥이 아닌 사랑 밥이 되었나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큰 나눔으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이 곳에서 만난 아이들을 위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배움

캄보디아 현장을 보며 우리나라의 50~60년대를 사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가 이랬지, 마을도 이런 모습이었고, 공부도 이렇게 했었지.”

어른들은 지난날을 회상하며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해주십니다. 어렵던 시절,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밥을 먹고,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아무런 희망없는 곳에서도 희망은 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나눔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말합니다.



실천

지뢰 피해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 뿌억에 세운 예배당으로 빵을 나누어 주기 위해 갔습니다. 아담한 예배당 안은 가득 차고, 밖까지 넘치게 모인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돌아오며, 이들이 단순히 빵만을 받으려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들에게 예배당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마을에서 중요한 장소임을 깨달으며 또 한 번 ‘아-그래서 아시아 다일비전센터 건립이 필요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아시아 다일비전센터가 세워지면, 아시아의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을, 나눔과 섬김의 봉사생활을, 일하며 기도하는 공동생활을 통해 나사렛 예수의 영성으로 아시아인들이 키 재기, 편 가르기 없이 모두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며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사용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에 아시아 다일비전센터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의미를 넘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마을을 살리고 한 국가를 살리는 희망을 세우는 일입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다일공동체의 아시아를 향한 비전을 나누는 것이 작은 실천의 시작이지만, 이 나눔을 통해 아시아 다일비전센터의 벽돌 한 장을 쌓는 가장 큰 실천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 다일비전트립팀 (2012. 05. 27 ~ 05. 31)

누구와 함께? 강효정, 박순옥, 박영하, 박용대, 박은애, 송혜경, 유정희, 이계안, 이수형, 조수옥, 최일도, 최철수, 홍경수, 홍진환

무엇을 했나요? 밥퍼, 빵퍼, 위생 봉사, 거저축제,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사업장(아시아다일비전센터, 스텝뿌억예배당, KT&G수상유치원, 샘물다일유치원, 코이카다일조선소)방문

비전트립을 다녀와서... (이계안 협력대사 트위터 [twitter](#) 에서)

구실은 멋있게 최일도 목사님이 대표인 다일공동체의 대외협력대사 자격으로 캄보디아 씨엠립에 있는 다일공동체 캄보디아에 3박 5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이 땅에 굶주리는 자가 없는 날까지 밥을 푸겠다는 목사님의 뜻을 존경합니다. 아울러 북한의 동포를 생각하며 함께 간 여러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한 것을 트친/폐친께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감히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밥퍼는 바야흐로 24년이라는 청년시대가 되었습니다.

밥퍼에 오시면 있다니깐요?..... 뭐가? 밥술이 있다고요.....

밥퍼는 바야흐로 24년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청년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눔과 섬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 땅에 밥 굶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밥 푸는 일만하며
24살이라는 청년의 나이를 맞았습니다.

이 나이에 어울리도록 밥퍼 마당에는 밥심으로 아름다운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꽃을 심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희망을 심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향해 다일의 모든 식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심을 심었습니다.

오로지 섬기기 위한 신실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희망과 소망을 바라는 자들을 위한 푸른 숲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예수님께서도 지나가시다가 쉬고 싶어 하실 겁니다.



누구든 섬김을 받고 싶은 분들은 다 오시오!
다일의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 환영받고 싶은 사람들은 다 오시오!
환영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한국씨티은행과 서울 그린트러스트가 함께한 다일공동체 밥솥 만들기(2012. 6. 16)

날아가던 새들도 꼭 오시오!
밭퍼의 숲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대들의 노래 소리를 꼭 듣고 싶소!
도심 속에 만들어진 밥솥! 섬김의 장으로 다시 한 번 응비의 큰 나래를 펼 것입니다.

밭퍼는 매일매일 섬김의 축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박한 도시생활에 지친 자들이여!
아름다운 숲으로 쉬러오세요.
밥솥과 밭퍼는 영원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글/ 방중근 부분부장(밭퍼나눔운동본부)



남녀노소가 함께 일군 밥솥은 우리 모두의 쉼터입니다.

설곡산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비발디의 사계를 들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화무쌍하면서도 참으로 아름답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봄으로부터 시작되는 연주를 듣다 보면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은 어떻게 표현될지 궁금함을 가지곤 합니다.

설곡산에 오르는 사람들 역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너무나 다른 모습에 정말 이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게 됩니다. 비발디의 사계보다 더 아름다운 설곡산의 선율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서울에서 한 시간이면 달려올 가까운 곳에 이 아름다움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선물, 가장 소외된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시간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다일공동체가 주관하여 오는 6월 8일부터 2박 3일간 다일영성수련원에서 노숙인 36명이 영성수련 프로그램 제2회 '다시한번 일어서기'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로 2회째 맞는 노숙인 영성수련 '다시한번 일어서기'는 서울시 자활지원과가 2009년부터 노숙인 심신수련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다일공동체가 협력하여, 노숙인들이 영성수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 살아야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마련되어졌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주 강사로 진행하며, 그 외에 보조강사 도우미들이 참가자들의 1:1 멘토가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싫은 것입니까?” “따뜻한 물 붓기” 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진행되었고, 둘째 날에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성찰의 시



간과 멘토들과의 공감의 장이 마련되었고, 마지막 날은 다함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결단의 시간으로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겠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며 살겠다” “작은 꿈이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분들의 고백은 모두에게도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웃었던 2박 3일이 모두에게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밥퍼사역이 우리 시대의 가장 소외된 이웃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운다면, 영성수련은 심리적인 안정과 치유 및 영적 필요를 공급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 선물, 매일 드리는 예배

6월 1일부터 시작되어 매일 드리지고 있는 예배는 요일마다 다른 양식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일반 기도원이나 수련원 하고는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영성과 침묵을 지향하는 영성수련원이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에는 음률에 맞춘 성서낭독과 기도의 예배, 화요일에는 주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제제공동체식의 예배,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말씀예배, 목요일에는 영성회복을 이루어가는 찬양의 예배, 금요일에는 순명의 삶을 회복하는 사명자의 예배로 드려 집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을 위한 영성과 침묵을 통한 치유의 동산에 오셔서 영성수련도 받으시고, 매일 예배도 드리시고, 자연치유의 쉽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글 / 최 홍 원목(설곡산다일공동체)

차량이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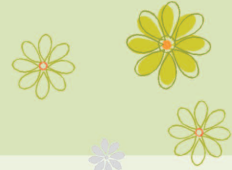
매일 설곡산 출발 : 오전 8시, 오후 5시 (이모세 원장 010 6375 8004)

매일 청량리 출발 : 오전 10시, 오후 7시 (김웅진 실장 010 4168 8843)



Nepal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자랑스런 네팔다일청소년축구팀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때 대한민국은 경기 때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현수막이 나붙었고 이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온 국민이 목격하고 큰 감동과 감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월드컵 이후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꿈을 꾸게 되었고 ‘꿈은 이루어진다’는 소망과 확신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네팔에서 이러한 꿈을 찾기로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습니다. 그동안 네팔의 경제는 히말라야를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수입과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지해왔습니다. 아직도 국가의 헌법이 없다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대학 졸업생들도 일자리가 없어 꿈을 갖기로 힘든 현실 속에서 네팔다일공동체가 사역하는 마흐하르 강변 네팔 최대 도시빈민촌 마을에 작은 꿈들이 싹트고 있습니다.

온갖 쓰레기로 가득하고 흙먼지가 날리는 공터에서 유일한 즐거움이었던 축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네팔다일청소년축구팀’ 1.하나님을 잘 믿고, 2.부모님께 효도하고, 3.학교에 열심히 다닌다는 조건으로 시니어 15명, 주니어 1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훈련하여 지난번 정식 축구경기장에서 첫 번째 공식경기를 했는데 그만 9대 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난생 처음보는 축구경기장과 가득찬 관중들을 보며 처음부터 주눅이 들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한자리수(9)의 골만 졌으니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다음에는 저도 좋으니 한골은 넣자고 했더니 모두들 크게 한번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시니어 중에 센터에 배에는 참석하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세 명의 청소년(사로스, 수레스, 수비트)이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뉴저지의 정선희 집사님과 애틀랜타의 정인자 집사님이 시니어팀과 주니어팀의 축구유니폼과 축구화를 각각 후원해주셔서 아이들과 빈민촌 주민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네팔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당찬 꿈을 꾸는 우리 축구팀 아이들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영양이 부족하여 몸싸움에서 밀리는 아이들의 체력보강을 위한 음식 값과 훈련용 축구공이 필요합니다.

빈민촌에는 아이들만 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새벽에 일어나 공터를 돌며 체력훈련을 하고, 토요일 아침마다 마을의 쓰레기를 줍는 청소년축구팀을 보면서 빈민촌 어른들에게도 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는 네팔의 현실에서 그들에게 일자리는 정말 천사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온갖 쓰레기가 가득한 구정물에 들어가 바닥에서 모래나 흙을 채취하여 생계를 꾸려갑니다. 그런데 이 빈민촌 어른들에게 작은 꿈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네팔다일공동체의 대안생리대 사업을 통해서입니다. 가난해서 일회용 종이생리대를 사용하지 못하고 천을 말아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나뭇잎을 사용하는데 건강에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부담되는 그들에게 대안생리대는 참 안성맞춤입니다. 환경도 살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 가는 대안생리대는 빈민촌 여성과 센터의 여자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촉감이 좋은 면으로 예쁘게 디자인하여 미싱한 대안생리대는 앞으로 이 빈민촌 여성들에게 일자리까지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텝들이 구입한 천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면 그들이 천을 제단하고 미싱하여 완제품을 만들고, 우리 빈민촌뿐만 아니라 지방의 빈민촌과 가난한 농촌마을과 일반인들에게도 판매하려고 합니다.

마침 센터에 오는 아이의 한 아버지가 미싱기술은 좋은데 일거리가 없자 미싱을 팔아 술을 마신 분이 있습니다. 한 동안 술을 마시면 아이들을 때리고 술주정하던 그는 일대일 아동결연을 통해 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을 보며 정신 차리고 부인과 함께 매일 밥퍼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분이 마을 여성들에게 미싱을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미싱이 있는 가정에는 일거리를 주고 새롭게 미싱기술을 배우길 원하는 분들에게 이 기회에 '네팔다일직업기술학교'를 만들어 미싱기술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팔다일직업기술학교'의 첫 번째 기술교육반으로 미싱반을 운영하기 위해 우선 5대의 미싱(1대당 150불)과 대안생리대 제작에 필요한 천구입자금(1,000불)이 필요합니다. 이제 막 싹트는 빈민촌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천사들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팔어로 데레이 단예벳!)

글/ 박종원 원장(네팔다일공동체)



대안 생리대를 만드는 여성들

Vietnam

더 넓은 세상 볼 수 있기를 꿈꾸며



껀또의 작은이모와 할머니

15세 사춘기 소녀 자오테이 껀또는 두 살 때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사고로 잃고 할머니와 이모 두 분과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기력이 쇠하셔서 경제활동을 하실 수가 없고 작은 이모는 지체장애자이고, 그동안은 큰 이모의 경제활동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큰 힘이 되었던 큰 이모마저 자궁암 수술을 하셔서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생활비는 베트남 최저임금도 되지 않아 네 식구가 하루 한 끼 밥을 먹기도 힘이 듭니다.

자오테이는 어려서 오른쪽 눈을 다쳤는데 가난한 형편으로 제대로 치료를 못해 결국 오른쪽 눈은 실명되었습니다. 긴 생머리로 항상 실명한 오른쪽 눈을 가리고 다니며 묵묵히 밥벌 일을 돕는 자오테이의 활짝 웃는 모습을 본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너는 사랑 받기위해 태어났단다.” 그리고 “너는 지금 사랑 받고 있단다.”라는 말과 함께 이 아이에게 잃어버린 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쪽 눈으로 바라보지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가난이 대물림 되는 세상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다른 청소년 아이들처럼 꿈을 꾸도록 해 주고 싶습니다.

자오테이 껀또라는 소녀를 통해 베트남다일공동체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 3회 밥을 푸지만 매일 배식도 하고, 꿈을 잃은 아이들에게 기술도 가르치고 직업훈련도 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더 나아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꿈입니다.

올 2월 지금 캄보디아다일공동체에서도 이미 이 꿈의 실현을 위하여 아시아 다일비전센터 세우기의 첫 삽을 떴습니다. 이 곳에서는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아시아 전역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다일영성수련과 직업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와 더불어 도움을 받는 자에서 나누는 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가야할 길이 땀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트남다일공동체 밥퍼와 나아가 아시아 다일비전센터를 위해 함께 꿈을 이루어 가실 봉사자, 후원자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슴이 땀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 봉사자 나눔터

몸과 맘이 풍성했던 어린이 날

베트남의 어린이날은 6월 1일입니다. 어린이 날 행사에는 학용품 세트와 과자, 과일, 음료를 준비하여 300여명의 아이들에게 선물과 함께 밥퍼 배식을 하였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참 많은 분들의 후원과 봉사로 몸과 맘이 모두 풍성한 날이었습니다.

니눔,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쁜 일

영산대학교 평생교육원팀은 하나투어를 통해 베트남 여행 중에 하루를 베트남다일공동체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흑목고아원에서 오후에는 밥퍼센터에서 준비해 온 학용품(볼펜, 형광펜, 크레파스, 종합장)과 생필품(치약, 칫솔, 수건)을 받는 사람과 나누는 사람 모두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하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땀으로 온 몸이 젖어도

호치민은누리교회에서 5주 동안 받는 순장사관학교 프로그램을 마치기 전 주님 사랑조 6명(세 가정)이 밥퍼 봉사를 오셨습니다. 봉사자분 중에서도 어렸을 때 자신도 무료 급식 해주는 곳에서 밥을 먹고 자랐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밥을 푸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땀으로 온 몸이 젖어도 기쁨으로 봉사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왼쪽부터 리차드, 변창재원장, 케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찢어진 마음을 한 땀 한 땀 꿰매드립니다.

하루는 고등학생인 케빈이 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케빈, 왜 학교에 안가니?”

“교복 바지가 없어서 못 가요.”

“너 바지 있잖아, 입고 다니는 걸 봤는데 무슨 소리지?”

“얼마 전에 교복 바지가 보라색으로 변경 되었는데 돈이 없어
예전 교복을 입고 갔더니 선생님이 가위로 제 바지를 찢었어요.
그래서 못 가요...”

부모님이 안 계신 케빈은 돌보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님에 의해 싹둑 잘린 바지처럼 케빈의 마음도 잘렸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파 즉시 케빈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바지 원단을 사 교복 바지를 맞추어 주었습니다.

기뻐하는 케빈을 보니 마음 한쪽이 뭉클해 졌습니다.



고아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찢겨진 마음을 한 땀 한 땀 꿰매어 주시길 기도드리며...



02 <다일천사병원> 한미약품 캄보디아에 약지원 03 <다일작은천국> 노숙인 체육대회

01 다일복지재단

2012 소통과 나눔 컨퍼런스 참여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단체·기업·정부 등 각계 사회공헌 전문가들이 모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소통의 장에서 다일복지재단은 캄보디아다일공동체의 조선소 사업을 김형길 사무총장님께서 우수사례로 발표하였고, 뽕퍼 사업도 소개하였습니다.

02 다일천사병원

한미약품지원

한미약품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필요한 약인 고혈압약, 감기약, 안약 등을 캄보디아 다일천사클리닉에 지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제약 약품후원

우리들제약에서 당뇨, 고혈압약을 비롯한 각종 필수 의약품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환자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을 돌보는 마음에 동참하기

다일의 헌신된 사역자, 봉사자들이 한 맘되어 질병의 고통으로 찾아오는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일에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03 다일작은천국

입소자 회갑연과 작은음악회

작은천사 이현희선생님과 친구들이 바이올린 삼중주 “작은음악회”로 입소자들을 위로해주었습니다. 때마침, 회갑을 맞이한 입소자 분께 깜짝 회갑연까지 겸하였답니다. 작은천국에서는 입소자 분들의 생일, 칠순, 팔순 등 특별한 날을 함께 헤드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문화행사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례 후 가족과 화해

윤은순님은 담도암 말기 환자로서, “나, 죄 지은 것 회개하고 천국가야 하니까 빨리 세례 주세요.” 라고 간청하여, 지난 6월 6일, 최일도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받은 날 10년간 헤어졌던 언니들이 나타나 눈물의 재회를 하고, 관계가 단절되었던 아들이 나타나 마지막 효도를 하고 싶다면서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윤은순님은 세례를 받더니 좋은 일이 생긴다면서 너무 좋아하였습니다. 다일작은천국은, 더 많은 입소자 분들이 가족들과 화해를 이루길 소망해 봅니다.

제 2회 “다시한번 일어서기”

서울시 주최, 다일공동체 주관으로 노숙인 영성수련 제2회 “다시한번 일어서기”를 설곡산다일공동체에서 6월 8일~10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총 36명의 노숙인들이 참가하고 50여명의 도우미들이 함께한 영성수련이었고, 최일도 목사님께서 혼신의 열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수련을 마치고 노숙인들의 다시 일어설 의지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숙인체육대회 참여 및 떡 후원

지난 5월 17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서울시 주최 노숙인체육대회 참가한 2천명의 노숙인들의 간식용 떡을 새벽부터 다일공동체 밥퍼 스태프들과 작은천국 입소자들까지 총동원되어 정성껏 만들어서 제공하였습니다. 최일도목사님과 다일 홍보대사 김미화님이 참석하여 노숙인들의 사회 재활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04 예향어린이집

이야기선생님이 들려주시는 동화

지난 6월 4일,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으로 강남시니어프라자에서 할머니 선생님께서 오셔서 재미있게 손인형극과 율동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짧지만 아이들에



04 <예향어린이집> '우아 손 인형극이다'



05 <미주다일공동체> 네팔을 위한 후원 바자회

게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재난대비 안전교육

6월 13일에는 영유아 대상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태풍과 호우의 발생원인과 예방방법의 주제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곧 다가올 여름철 재난과 재난대처방법을 알아보며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알고,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능동 어린이대공원 현장학습

6월 14일, 6월의 주제 동물과 연계하여 4세, 5세반 유아들이 능동 어린이대공원으로 현장학습을 가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과 함께 배운던 여러종류의 동물들과 직접 만나 보았습니다.

해 외 분 원 소 식

05 미주다일공동체

사랑의 자선바자회
5월 19일 네팔 빈민촌 어린이돕기 사랑의 자선바자회를 유빌라떼 Parking Lot에서

사랑하는 벗님들과 후원자분들, 자원봉사자 학생들, 헤브론, 새생명교회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풍성한 장을 마련해 주셨고, 이날 총 수입금은 가난하고 할벗은 네팔어린 이들에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더불어 정인자님과 이혜영님은 네팔아동 세 명씩 결연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후원자(가수 이지연님) 소개

현재 Heir Loom Market BBQ를 운영 중인 이지연님은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네 팔다일홍보대사로 내년(2013년) 초에는 네팔다일공동체를 방문하여 빈민촌 어린이들을 위해 햄버거를 직접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미주지역의 많은 분들이 자녀의 마약문제, 부부문제, 가정문제 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미주에서 다일영성수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06 중국다일공동체

반가운 손님들
연길교회(최원삼 출석교회) 소그룹 청년들

과 멀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뉴비전교회에서 방문해 주셨고, 특별히 현지 이안철 선생님의 연계로 일산 리빙웰 치과병원 김현철 선생님께서 어린이집 전체 아이들의 치과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포스코 웨밀리 봉사단과 등산

훈춘의 포스코 웨밀리 봉사단과 다일어린이집 가족들이 함께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등산 후 맛있는 점심까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포스코 웨밀리 봉사단,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대입시험을 무사히 끝낸 고3 수험생, 최예화와 아직 남아있는 중3 왕조선, 하이버, 하이타오, 야오주앙의 고입시험을 위해, 그리고 마웨, 최원삼의 미국비자 발급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07 필리핀 다일공동체

성경책 배포
신약 성경 100권은 성경학교를 수료하는 어린이들에게, 신구약 합본 100권은 유치원 입학식날 학부모들에게 배포했습니다.



06 <중국다일공동체> 봉사단과 함께 '최고야!' 07 <필리핀다일공동체> 오늘은 색깔을 알아보아요 08 <캄보디아다일공동체> 거저축제 '뭘 고를까요?'

성경을 후원해 주신 분들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치원 2기생 입학식

필다일 드림유치원 2기생 40명이 6월 18일 예쁜 교복을 입고 입학식을 합니다. 만 4세 아이들은 킨더 I 과정이라 하는데 이 과정을 마치면 내년에는 킨더II가 될 텐데 계속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초등학교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지붕개량사업

우기철에는 누더기 낡은 지붕으로 비가 새어 들어와 쪼그리고 앉아서 새우잠을 겨우 청하는 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붕을 함석(양철 스텐트)으로 개량하면 비가 쏟아지는 밤에도 단잠을 선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 지붕 개량비용: 약 20만원

08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다일비전트립팀 방문

최일도 이사장님과 다일비전트립팀이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맘 흘려 봉사하고, 함께 아시아 다일비전센터를 둘러보며 땅밭기 기도를 하는 시간을 통해 캄보디아를 향한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비전트립을 통

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함께 꾸며 진한 감격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저축제

프놈끄라움, 쯙크니어 마을 주민들 800명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거저축제를 했습니다. 그동안 후원해 주셨던 옷과 신발, 장난감, 학용품 등을 나누었는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귀한 선물을 받는 즐거움과 설렘 가득한 동네잔치였습니다. 물품들을 모아서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심장수술 후 회복중인 르은이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고, 척추수술을 받았던 뽀안이가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데 돕는 손길들이 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완치된 르은이와 뽀안이가 캄보디아 어린아이들에게 참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09 탄자니아다일공동체

교복후원

교복이 없어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고등학생 2명(케빈과 리차드)에게 교복 바지가 전달되었고,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원회원님의 관심과 사랑과 격려 덕분입니다.

정착 단계

탄자니아의 김정태 선교사님께서 집을 구하는 동안 자신의 집을 사용하도록 흔쾌히 공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히 지내다 드디어 거주할 집을 구했습니다. NGO 등록이 무사히 잘 마쳐져서 굶주리고 병든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참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다일의 자원봉사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지사 미용봉사



춤팀 밥퍼 앞마당 사과나무심기



동부메탈



오륜교회 5권사회



현대상선 밥퍼 봉사

나누고 싶은 이야기



(왼쪽)양하연 봉사자와 (오른쪽)박희선 약국장

다일천사병원 봉사를 하며...

짧은 기간 자리 지켜드리는 것 뿐인데 부끄럽습니다 ...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는 기간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동안 봉사할 곳을 생각하다 우연히 다일천사병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혼자이고, 아파도 말할 곳이 없어 속수무책일 때예요,
찾아간 곳에서 지금 왜 이런 모습인지 묻지도, 책하지도 않고,
다만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는 것을 자기 일로 여기고
진지하게 제 상태에 대해 물어주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면요,
어떤 마음이 들까 생각해보니, 마음 한 곳이 차오르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일천사병원에서 만나는 좋은 분들을 통해 자꾸 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아무썩 여기서 봉사하는 동안, 제 눈빛이나 인사 한마디라도
그렇게 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양하연 약사(천사병원 자원봉사자) -

- 양하연 약사(천사병원 자원봉사자) -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에게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 2012년 5월 21일~6월 22일 국내통장 입금 기준입니다

6월 신규후원

7회 금옥초등학교동창회, LGCNS, 경기도청, 고영성, 고혜진, 김경남, 김문수, 김민주, 김상군, 김상학, 김성미, 김수홍, 김은혜, 김정봉, 김진희, 김태현, 김현순, 김형규, 나그네교회유초등부,老夫의후원, 무명, 문광부 김용환차관, 박미주, 박순옥, 박연규, 박혜순, 박희자, 손영희, 송해범, 심기석, 안길상, 양승철, 양하연, 예종배, 오영일, 유소연, 윤은순ct, 은총교회, 이금순ct, 이기남감사^^, 이남희, 이명옥, 이상용, 이수정, 이지환ct, 이진복, 이철수, 이태봉, 이태익(옥합선교회), 임정소, 장건호, 장귀현, 장수백, 장점자, 장해님, 재단법인동부문화재단, 제아름, 제양환, 조수빈, 주세진, 중소기업중앙회신우회, 지하국, 진효정, 최보람, 최하나, 춤사, 하나투어박람회쿠키판매, 하재훈, 한미약품(주), 한진해운전용선팀

법파나눔운동 후원

[후원금]

양순화, 최주영, 홍경화, 김수일, 심영주, 유민자, 예종배, 한진해운 전용선팀, 진효정, SK텔링크, 박종일, 김보나, 지혜인, 동부문화재단, 한국씨티은행, 엠엠글로벌, 오영일, 일산은혜교회, 서장선, LB인베스트먼트, 이영숙, 박정훈, 대한지적공사, 신한생명후원, 주)에이엠피, 지방행정연수원, 중소기업중앙회신우회, 최주영, 최경근, 이일옥, LGCNS, 김용환차관, 최은숙, 티시스, 오륜교회 5권사회, 광현교회, 권혜진, 윤현숙, 정신남, 신민숙, 옥합선교회

[후원물품]

5/22 강민수,이초아 미니리나물 4Box, 두리반 김치 20KG 1BOX
5/23 금란제빵 쌀20KG 20포
5/26 김도하떡 백설기 3BOX
5/29 백선진 쌀20KG 2포
5/30 수재김치 김차900KG
5/31 가나안떡 오리훈제 400봉지
6/5 박임순 떡 3BOX
6/11 보양식당 각종양념 30KG, 국제문화개발연구소 콩나물5KG 9봉지
6/12 영우디지털 재래시장상품권 20장, 시스코 재래시장상품권 30장, 이석행 참쌀 10KG
6/13 서울우유 1008개

[옷퍼후원]

임재균, 진주희, 박지원, 류지혜

다일천사병영/다일작은천국

[후원물품]

한일교회(이국천), 황희창, 이금순, 김유화, 송해범, 양하연, 윤은순ct.언니들, 이지환, 염형준ct.아들, 김한준, 민충순, 그린라이브(치솔)

< 해외분원 >

미주다일공동체

[특별후원]

정진아, 이숙의, 정성희, 이해영, 정인자, 예스터정, 민지홍, 서순옥, 윤경순, 박수자, 양국한, 양인호, 함효숙, 김영자, 오영의, 김미향, 정기락 윤상조 외, 무명
[모금할 설치]
Heir Loom Market BBQ와 2곳

중국다일공동체

김성재(Obey & Praise), 시카고 스마일, 스마일피기님, (주)소명철강, 지춘란, 평생 후원자, 대전 동안교회, 샌프란시스코 뉴비전교회, 흑룡강 상인회, 포스코패밀리봉사단(전체외식, 간식), 영광제빵(빵), 하은이네(양말), 연길교회 청년소그룹(과일)

베트남다일공동체

[나눔회원]

(\$100의 기적 후원) 우리은행 호치민지점(3000만동), 대우INTERNATIONAL, 포스코 베트남(600만동), 보민건설 심재호, 사이공한인연합교회, TEMSCO 유명식, 최용하가족, 동나이VCB, 영산대학교 평생교육원(\$300), 박희상.윤은하(300만동), 김지선, 정수현, 호치민 CBMC(1100만동), Han Global 한희준(300만동), WinWin여행사 박영호

[일시후원]

박정규(50만동), 송종희(50만동) 정성호(50만동), 지강환(50만동), 김수현(10만동)

[정기후원]

정영숙, 남승현, 전기성, 송윤서, 배준익, 오은지, 김윤, 김민, 최혜인, 헤린, 기흠, 조서영, 추원미, 이중환

[후원물품]

베트남Dole(바나나 20box), 도넛도넛(도너츠), 포스코ICT(쌀40kg,바나나), 베트남SOUTH ASIA (우유140개.빵

130개), 영산대학교 평생교육원(스케치북, 볼펜, 형광펜, 종합장, 수건, 치약, 칫솔, 크레파스 각 200개, 옷10벌, 사탕)

[모금할후원]

포스코 베트남 모금함(678,500동)

[모금할설치]

우리은행, 국민은행, 포스코ICT, 포스코베트남, 돌판위에 꽃돼지, 해뜨는집, 유천냉면, 지구촌새생명교회-카페, 온누리교회 북카페, 스카이마트, K마트, 도넛도넛, 갈비지존, DADA미용실, 대궐떡집, 씨클로, 최고집, 대장금, 예가, 롯데마트2 플레이타임

[자원봉사자]

포스코베트남 김동호,조유현,우정재외 30명, 포스코ICT 김광석, 정형선, 박용남, 장준화외 10명, 대우INTERNATIONAL 최시호,김길성의 3명. 포스코SOUTH ASIA 서도석외 4명, 김태수, 김남호, 유현국, 김동윤, 송단비, 최혜린, 서유정, 서지향, 최혜인, 안연숙, 최다현, 다원, 박영호, 이창순, 심동진, 이재우, 심준승, 오재린, 엄채은, 김성태, 이택희

필리핀다일공동체

필리핀PTS한인교회, 지일환, 문정호, 한상소, 신동환, 캐나다 청년연합회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천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

[현장후원금]

충남아동복지협회,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봉사회 흥덕지구협의회, 청심국제고등학교, 임정미, 정홍서&박은길, 수원장안 산악회, 홍진환, 박순옥, 최철수, 석수빈&재혁, 박신애, 수원행복캄, 헌신중학교 학생일동

네팔다일공동체

정성희, 정인자(축구복, 축구화), 이의숙(빔프로젝트)

다일은 여러분의 맘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ARS 060-708-1588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 CMS(자동이체)**
 -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후원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손쉽게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원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착한소비 행복한 나눔**
 - 사랑의 보험**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기부플랫폼에 건적예약 하면 보험만기 1개월 전에 8개 보험사 비교견적을 제공하여 가장 좋은 가입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수익금의 30%(최대 3만원)가 다일공동체에 가입회원님의 이름으로 기부됩니다.
 - 사랑의 쌀 환환**
한번만 쓰고 폐기하는 1회용 환환 대신에 개업식, 결혼식, 장례식 등의 애경사에 기존의 꽃 화환 대신 사랑의 쌀 환환으로 축하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나눔쌀 상품권을 전달하여 4인 가족이 2달이상 충분히 먹을 만큼의 나눔 쌀이 다일공동체에 주문회원님의 이름으로 기부됩니다.
-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 참여

후원 문의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지역 후원계좌

-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 은행번호 : 06119794
 - 계좌번호 : 1510014622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34001270347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 국내후원계좌 국민은행 : 467701-01-053115
-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0337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밥퍼나눔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babfor@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minjuna8@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433-753-8004

E-mail mookanri@dail.org
후원계좌 기업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95-999-1004

E-mail lpl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55-78-708080 855-12-808861

E-mail histime@dail.org
후원계좌 사업팀 국민 467701-01-14256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프놈펜 국민 467701-01-14257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278 63-927-560-7346

E-mail graceke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1-384069

E-mail babperdail@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669 255-786-740-003

E-mail bcj337@dail.org / dail8004@gmail.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5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보내는 사람

□□□□-□□□□



DAIL 다임공동체

DAIL Community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진봉1동 497-77

T 02)2212-8004 F 02)2243-8005

1 3 0 - 8 5 7

매일 드리는 설곡산 예배 안내

6월부터 설곡산에서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 예배를 사모하는 벗님들을 초대합니다.

설곡산다임공동체에서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매일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다른 형태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예전이
분명한 삶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 월요일 - 음률에 맞춘 성서낭독과 기도의 예배
- 화요일 -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사랑의 예배
- 수요일 -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말씀의 예배
- 목요일 - 영성회복을 이루어 가는 찬양의 예배
- 금요일 - 순명의 삶을 회복하는 사명자의 예배

※ 매일 예배에 참여 하시는 분을 위하여 하루에 2번 차량 운행을 합니다.

매일 설곡산 출발 : 오전 8시, 오후 5시(이모세 원장 010-6375-8004)

매일 청량리 출발 : 오전 10시, 오후 7시(김웅진 실장 010-4168-8843)

예배시간(장소) : 매일 오전 11시 30분 (자연치유센터)

매일 오후 2시 (기도14처 맨발로길 묵상)



보내는 사람

□□□□-□□□□



DAIL 다임공동체

DAIL Community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진봉1동 497-77

T 02)2212-8004 F 02)2243-8005

1 3 0 - 8 5 7



르은이를 살려주세요!

힘든 수술을 무사히 마쳤지만,
위낙 약하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던 아이라
빠른 회복이 어렵습니다.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 캄보디아의 엄마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함께해주세요

| 후원안내

국민 467701-01-128318 (사회복지법인다임복지재단)

문의 02. 2212. 8004 www.dail.org

후원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V해 주세요

♥ 전인치유후원(Healing)

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의사사범지망등의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일만사후원(월 1만원) _____구좌 신청
- 다일작은천국후원(월 1만원) _____구좌 신청
-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_____구좌 신청

♥ 무료급식후원(Feeding)

밥퍼나눔운동(무료급식사업)을 위한 배식비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밥퍼만사후원(월 1만원) _____구좌 신청
- 밥퍼365후원(월 36,500원) _____구좌 신청
- 밥퍼 일배식비후원 (200만원)

♥ 다일비전후원(Vision)

다일공동체의 섬김과 나눔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준비하는 사역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일나눔후원(월 1만원) _____구좌 신청
- 다일평생천사후원(1구좌 1004만원) _____구좌 신청

♥ 생명이음출후원

다일공동체 해외분원의 무료급식, 무료진료등의 해외사역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캄보디아다일공동체후원(월 1만원) _____구좌 신청
- 네팔다일공동체후원(월 1만원) _____구좌 신청
- 필리핀다일공동체후원(월 1만원) _____구좌 신청
- 베트남다일공동체후원(월 1만원) _____구좌 신청
- 중국다일공동체후원(월 1만원) _____구좌 신청
- 아프리카다일공동체후원(월 1만원) _____구좌 신청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문의 다일복지재단 Tel_02-2212-8004 Fax_02-2212-8032 www.dail.org

www.dail.org로 접속하시면 더 다양한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방법

- 자동계좌이체

♥ 인적사항

• 이름 _____ (남, 여, 단체)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_____

• 전화번호 _____

• 휴대폰 _____

• 이메일 _____

• 주소 _____

♥ CMS 출금 자동이체 동의서

(자동계좌이체시 필요하오니 꼭 작성해주세요)

• 출금은행 _____ 은행

• 계좌번호 _____

• 이체일 5일 15일 25일

• 예금주 _____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_____

• 이체금액 _____ 매월 _____ 원

본인은 다일복지재단에 CMS출금자동이체를 이용하여 후원금을 납부하겠습니다. 만일 출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일복지재단과 협의하여 조정하며 출금은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다일영성수련



주말, 아세찾기(주아찾기)는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을 위한 다일의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수련입니다.

7월 9일~7월 11일 영성지도자를 위한 아세찾기

7월 20일~7월 22일 주말아세찾기

7월 30일~8월 03일 아름다운세상찾기 137기

8월 06일~8월 10일 아름다운 세상찾기 138기

8월 13일~8월 18일 작은예수 살아가기 43기

9월 14일~9월 16일 경축수련(Blessing 영성수련)

9월 17일~9월 21일 아름다운 세상찾기 139기



인도 |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한동대학교 겸임 교수
K-TV 멘토링 토크 진행
CBS-TV 새롭게 하소서 진행

최저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도서출판 다일)
마음열기(중앙M&B)
더 늦기전에 사랑한다 말하세요(동아일보사)
행복하소서(위즈덤하우스)
신간! 밥심(마음의숲) 등

설곡산다일공동체 T : (031)585-2004
www.dail.org H: (010)6375-8004

독자엽서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월간 다일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월간 다일공동체를 통해 감동적인 사연을 공모합니다. 다일의 사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A4용지 2매분량입니다. 원고가 채택되신 분들께 최일도목사님의 신간을 보내드립니다.

♥ 이번 호를 읽고 느낀 소감

♥ 월간 다일공동체를 통해 주로 읽고 싶은 기사는?

- ① 해외 분원에서의 활동 소식
- ②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자 이야기
- ③ 다일천사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환자들의 이야기
- ④ 기타 _____)

♥ 월간 다일공동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dail

아시아

다일비전센터를 위하여...

"Our children
Our Hope!"



I ♥ Cambodia

2012.07 다양성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다일공동체
www.dail.org

다일
공동체

제5회
7.7.7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밤

한국 최고의 여배우

3 Actress
+ weekend concert

1 Pastor



삼배일목(三俳一牧)과 함께하는 주말나눔콘서트를 통해
참사랑의 나눔을 실천합니다

씨엠립 호수위에 뜬 쌍무지개

무더운 여름, 평안하신지요?
시원한 소나기가 쏟아져서 목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셔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씨엠립에 가면 반드시 새벽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곳이 톤레삽 호수 한복판입니다. 이번 비전트립팀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톤레삽에서 수평선이 보이는 곳으로 나아가 배 위에서 선상 새벽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날 무렵 우리 일행은 그야말로 장관을 보았습니다.



무지개처럼, 캄보디아에 희망이 뿜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귀한 응답처럼, 무지개를, 그것도 커다란 쌍무지개를! 말이지.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꿈인 아시아 다일비전센터를 세우는 일을 나누며 주님의 제자들이 캄보디아 땅에서 양육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치 우리 마음을 충전연색으로 읽어 주시고 무지개 색깔로 응답해주시는 것 같이 하늘 위에 너무도 선명하게 떠 있던 씨엠립 톤레삽의 쌍무지개를 오래오래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 아시아 다일비전센터를 세우는 일을 통해 이 땅과 아시아를 힐링필드(Healing Field)로 만들어가며 모든 아시아인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아름다운 지구촌을 만들어가기를 다시금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해 봅니다.

캄보디아에서 만난 청년 명덕이, 분탄 형제, 파아리 자매, 론 형제를 통해 다시 한 번 꿈이 현실로 이루어 지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중국다일공동체에서 자란 명덕이는 빵퍼를 담당했던 리일이의 후임으로 자신이 중국다일공동체에서 받은 사랑과 섬김을 빵 기술을 통해 나누고 있고, 프놈펜 밥퍼의 책임자 분탄 형제는 현지 스텝들 중에서 유일한 대졸자인데 지식만큼이나 겸손한 성품은 따라갈 사람이 없으며 다일의 헌신된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한국으로와서 다일제자훈련(D.T.S)을 받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캄보디아 심장병아동 르은이의 수술을 위해 한국에 함께 와서 원활한 통역을 맡았던 파아리 자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씨엠립 다일공동체에서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론 형제는 열일곱 살이지만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공부하고, 학교 가는 것을 어느 것보다 싫어했던 론이 학교에 잘 가고 다일공동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은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자라나는 희망을 바라보며,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아시아들을 위한 주님이 주신 놀라운 꿈, 아시아 다일비전센터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너무도 힘들고 고독할지라도 쌍무지개를 통해 보여주시는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후원 회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같은 꿈을 꾸며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12년 7월에

작은형제 **최** 원도 목사 올림

아시아다일비전센터 우리모두의 희망입니다.



아시아의 희망으로 자라날 청년들이 **아시아 다일비전센터**를 통하여
섬김과 나눔의 참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며,
더 나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42578(예금주_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문의 다일복지재단 Tel 02. 2212. 8004 www.dail.org
- 현지문의 캄보디아다일공동체 Tel 855. 78. 708080 (이옥주 부원장)
855. 12. 808861 (김영란 주임)

